

주부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조리원리 및 조리방법 지식에 관한 연구

김 우 경

동남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1992년 6월 1일 접수)

A Study on the Housemaker's Interest in Dietary Life and the Knowledge of Cooking Principle and Method

Woo Kyung Kim

Dongnam Health Junior College
(Received June 1, 1992)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maker's interest in dietary life on the knowledge of cooking principles and cooking methods, and on the daily meal management. Housemakers whose age ranged from 20 to 50 were surveyed in their resi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rest in dietary lif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ges, education and income levels. Moreover, housemaker who did not work or did not take care of relatives had higher level of interest in dietary life than those who did.

Second, most housemakers bought foods and prepared a meal by themselves. The average time spent in preparing meals was 2 to 3 hours, and the number of side dishes cooked per day expect for the main dish was 5.46 percent of the total respondents ate out more than once a month for a 'family tie'.

Third,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the knowlege of cooking principle and the variables such as ages, education and income levels.

Fourth, the level of the knowledge of cooking method about Korean traditional dishe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ges, education and income levels. In addition, housemakers who did not work or did not take care of relatives had less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dishes than those who did.

Finally, the interest in dietary lif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knowlege of cooking principle and cooking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dishes.

I. 서 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식생활이란 생존과 건강유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다. 개인의 식생활과 식습관은 좀처럼 변화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것이나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변천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들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경제수준, 가족구성원의 형태, 거주지 등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¹⁾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

화됨으로써 한 가정에서 식생활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²⁾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 하에서는 주부들이 식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음식의 조리방법도 많이 알고 있었으나 주부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식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도 및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도 변화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보면 식생활관리에 관한 조사,^{1,3)}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⁴⁻⁷⁾ 식품섭취실태 조사^{8,9)} 등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부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이 조리

원리 및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활의 담당자로서 그 가족 전체의 식생활과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식생활 관리 행동, 조리원리 및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이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수입, 가족구성형태, 거주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들 상호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992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달에 걸쳐 서울, 수원, 성남, 전주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연령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중 미회수 및 불완전 응답으로 인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93부(78.6%)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상황,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식생활 행동, 조리원리 지식정도 및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정도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1) 일반상황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수입, 총생활비중 식생활비 비율, 가족구성형태 및 현재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2) 식생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관심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총 생활비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과다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의·식·주·레저 및 오락 등의 가정생활중 식생활이 차지하는 순위, 식사준비를 위한 노력, 요리 솜씨, 조리지식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조사하여 점수화 하였다. 즉, 총 생활비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과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의 정도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1점, '약간 부족하다'는 2점, '적당하다'는 3점, '약간 과하다'는 4점, '과하다'는 5점으로 하였다. 가정생활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레저 및 오락, 육아 및 교육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하게 하였는데 순위에 따라 식생활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5점으로 하고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을 1점으로 하였다. 식사준비를 위한 본인의 노력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약간 부족하다'는 2점, '적당하다'는 3점, '신경을 쓰는 편이다'는 4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는 5점으로

하였다. 요리솜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못한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잘한다'는 4점, '매우 잘한다'는 5점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리지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잘 모른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잘 안다'는 4점, '매우 잘안다'는 5점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관심도는 위의 5가지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하여 종합 평가하였다.

3) 식생활 관리 행동

식생활 행동은 식사준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식사준비에 드는 시간 및 끼니별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 조리가 되어 있어 그대로 식탁에 오를수 있는 음식의(슈퍼나 백화점에서 만들어 파는 나물, 찌개, 전, 잡채 등의 반찬류) 이용정도, 외식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식사준비에 드는 시간은 '안한다'를 1점, '30분 이내'를 2점, '30분-1시간'을 3점, '1시간-2시간'을 4점, '2시간 이상'을 5점으로 하였고 하루 전체의 식사준비시간은 3기에 소요되는 준비시간을 모두 더하여 그 합계가 '1시간 이하'일 때를 1점, '1시간-2시간'을 2점, '2시간-3시간'을 3점, '3시간-4시간'을 4점, '4시간 이상'을 5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식사를 위해 밥·빵 등의 주식을 제외한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가 '안 만든다'를 1점, '1-2가지'를 2점, '2-3가지'를 3점, '3-4가지'를 4점, '5가지이상'을 5점으로 한후 새로 만든 음식의 가짓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계가 '2가지 이하'를 1점, '3-4가지'를 2점, '5-6가지'를 3점, '7-8가지'를 4점, '9가지 이상'을 5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4) 조리원리지식

조리원리 지식에 대한 설문은 15개의 문항으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하였다. 맞으면 1점씩 주어 1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모른다'고 답한 경우에는 틀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15개 문항중 맞은 항목이 4개 이하일 경우는 1점, 5-7개는 2점, 8-10개는 3점, 11-13개는 4점, 14개 이상은 5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5)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

한국의 전통음식 20가지의 조리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1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리방법은 모른다'를 2점, '조리방법은 알고 있으나 해 본적은 없다'는 3점, '어느정도 조리방법은 알고 있다'는 4점, '조리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5점으로 하여 총점이 50이하 일때는 1점, 51-60일 때 2점, 61-70일 때 3점, 71-80일 때 4점, 81점 이상 일때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설문지에 대한 자료처리과정은 SPSS Package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X² 검정을 사용하였고 식생활에 대한 조리대상자의 관심도 및 조리원리 지식정도,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정도에 대해서는 F검정을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상황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가 33.2%, 40대가 40.3%, 50대가 26.5%였고 교육수준은 8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가진 주부는 16.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경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월수입은 60-100만원(38.2%)과 100-200만원(43.1%)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생활비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인 경우가 81.7%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형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80% 정도였고 현재 거주지는 대도시가 63.2%, 중소도시 31.4%, 농촌지역이 5.4%였다(표 1).

2. 식생활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조사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생활비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과다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빈도로 볼때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점수는 2.72였다. 연령, 직업의 유무, 거주지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수준과 월수입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생활중 식생활이 차지하는 순위는 4.08로 '육아 및 교육'에 이어 2순위를 보였다.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40-50대에서, 직업이 없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는 동거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 '식생활'이 차지하는 순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식사준비를 위한 본인 노력의 평균 점수는 3.19로 응답자의 60% 정도가 '적당하다'와 '신경을 많이 쓴다'에 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0-30대 주부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응답한 경우는 40대 주부가 높아 40대의 주부가 다른 연령층의 주부에 비해서 식사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육수준과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에 식사준비에 본

표 1. 조사 대상의 일반상황

상황변수	집 단	인원수(백분율)
연 령	20-30대	128 (33.2)
	40대	155 (40.3)
	50대	102 (26.5)
교육수준	무 학	2 (0.5)
	국 졸	16 (4.2)
	중 졸	52 (13.7)
	고 졸	209 (55.0)
	대졸이상	101 (26.6)
직 업	유	65 (16.8)
	무	321 (83.2)
월 수 입	60만원 이하	15 (3.9)
	60-100만원	147 (38.2)
	100-200만원	166 (43.1)
	200-300만원	42 (10.9)
	300만원 이상	15 (3.9)
식생활비 비율	20% 이하	22 (5.7)
	20-30%	182 (46.9)
	30-40%	135 (34.8)
	40-50%	33 (8.4)
	50% 이상	16 (4.1)
가족형태	부부만	11 (2.8)
	부부와 자녀	306 (78.5)
	부부와 웃어른	11 (2.8)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	52 (13.3)
	기 타	10 (2.6)
현 재 거주지	대도시	246 (63.2)
	중소도시	122 (31.4)
	농촌지역	21 (5.4)

인이 신경을 더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리 솜씨에 대한 본인 생각의 평균 점수는 3.34로 '보통이다'가 56%,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2% 정도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주부보다는 40-50대 주부가 요리솜씨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요리 솜씨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업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주부에 비해 요리 솜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인의 조리지식에 대한 생각 점수의 평균은 3.12로 '보통이다'가 67%, '잘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 정도였다. 요리솜씨에 대한 생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20-30대

표 2. 식생활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상황변수	집 단	식비의 비율에 ¹⁾ 대한 생각	식생활이 ²⁾ 차지하는 순위	식사준비에 ³⁾ 드는 노력	요리솜씨에 ⁴⁾ 대한 생각	조리지식에 ⁵⁾ 대한 생각	총관심도 ⁶⁾
연 령	20-30대	2.74±0.67 ⁷⁾	4.01±0.91	3.05±1.09	3.16±0.69	2.98±0.63	15.93±2.34
	40대	2.71±0.77	4.12±0.77	3.32±1.03	3.47±0.68	3.18±0.53	16.77±2.08
	50대	2.71±0.68	4.12±0.82	3.19±1.00	3.38±0.69	3.20±0.62	16.55±2.26
	평 균	2.72±0.71 N.S. ⁸⁾	4.08±0.86 N.S.	3.19±1.04 N.S.	3.34±0.69* N.S.	3.12±0.59** N.S.	16.44±2.22**
교육수준	무 학	3.00±0.00	4.00±1.41	1.00±0.00	2.00±0.00	3.00±1.41	13.00±2.83
	국 졸	2.25±0.86	4.13±0.81	3.00±1.21	3.25±0.77	3.00±0.52	15.63±2.33
	중 졸	2.77±0.67	4.02±0.87	3.21±1.07	3.31±0.54	3.04±0.63	16.35±2.00
	고 졸	2.69±0.74	4.04±0.89	3.18±1.01	3.39±0.68	3.11±0.58	16.41±2.27
	대졸이상	2.83±0.62	4.16±0.76	3.33±1.01	3.34±0.82	3.20±0.64	16.82±2.23
평 균	2.72±0.70* N.S.	4.07±0.85 N.S.	3.20±1.03* N.S.	3.35±0.71 N.S.	3.12±0.60 N.S.	16.46±2.23*	
직 업	유	2.77±0.66	3.98±0.78	2.92±1.10	3.26±0.76	3.06±0.58	16.00±2.14
	무	2.72±0.72	4.10±0.87	3.24±1.02	3.36±0.69	3.13±0.60	16.53±2.25
	평 균	2.73±0.71 N.S.	4.08±0.85 N.S.	3.19±1.04* N.S.	3.34±0.70 N.S.	3.12±0.60 N.S.	16.44±2.23 N.S.
월 수 입	60만원 이하	2.13±0.83	3.79±1.05	3.20±1.37	3.14±0.77	2.79±0.80	16.00±5.24
	60-100만원	2.60±0.70	3.99±0.86	3.05±1.10	3.20±0.64	3.02±0.58	15.84±2.13
	100-200만원	2.76±0.69	4.11±0.84	3.30±1.00	3.39±0.70	3.15±0.53	16.68±2.06
	200-300만원	3.14±0.61	4.24±0.82	3.43±0.97	3.60±0.77	3.40±0.66	17.81±2.22
	300만원이상	3.07±0.26	4.40±0.83	3.27±0.88	3.87±0.74	3.47±0.64	18.07±1.94
평 균	2.72±0.68* N.S.	4.08±0.85 N.S.	3.21±1.05 N.S.	3.35±0.69** N.S.	3.13±0.58** N.S.	16.51±2.30**	
가족형태	부부만	2.45±1.04	3.60±0.97	2.73±2.42	2.70±0.95	2.70±0.67	13.37±5.18
	부부와 자녀	2.71±0.71	4.12±0.85	3.19±1.03	3.34±0.68	3.11±0.59	16.45±2.26
	부부와 웃어른	2.82±0.60	4.27±0.47	3.09±1.04	3.37±0.50	3.36±0.67	16.91±1.87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	2.87±0.69	3.94±0.85	3.35±1.01	3.56±0.73	3.21±0.61	16.92±1.82
	기 타	2.30±0.95	3.80±0.92	2.70±1.42	3.10±0.74	3.20±0.63	15.10±2.28
평 균	2.72±0.72 N.S.	4.08±0.85 N.S.	3.18±1.05 N.S.	3.34±0.69* N.S.	3.12±0.59 N.S.	16.40±2.32**	
현 재 거주지	대도시	2.72±0.70	4.12±0.81	3.22±1.01	3.36±0.71	3.12±0.58	16.53±2.19
	중소도시	2.70±0.75	4.03±0.90	3.08±1.13	3.30±0.69	3.12±0.65	16.20±2.39
	농촌지역	2.90±0.62	3.86±1.01	3.48±0.87	3.48±0.68	3.19±0.51	16.90±1.81
	평 균	2.72±0.71 N.S.	4.08±0.85 N.S.	3.19±1.04 N.S.	3.35±0.70 N.S.	3.12±0.60 N.S.	16.44±2.24 N.S.

1) '부족하다': 1점, '약간 부족하다': 2점, '적당하다': 3점, '약간 과하다': 4점, '과하다': 5점
 2) 가정생활(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레저 및 오락, 육아 및 교육)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가 식생활이 1위일때 5점을 주고 차례로 가장낮은 순위일 때 1점으로 하였다.
 3) '많이 부족하다': 1점, '약간 부족하다': 2점, '적당하다': 3점, '신경을 쓰는 편이다': 4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5점
 4) '매우 못한다': 1점,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
 5) '전혀 모른다': 1점, '잘 모른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안다': 4점, '매우 잘안다': 5점
 6) 5가지 항목을 합한 점수를 식생활에 대한 총 관심도로 표현하였다.
 7) 평균±SD
 8) N.S.: F 검정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 F 검정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F 검정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주부보다는 40-50대 주부가, 월수입이 높을수록 조리 지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는 동거인 특히 웃어른이 있는 경우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위의 5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조사대상자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평가해 본결과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부부만 있는 경우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생활 관리 행동

본인의 식사 준비 태도에 대한 생각은 모든 변수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귀찮지만 의무라고 생각해서', '즐겁다', '즐겁지만 할 시

간이 없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귀찮지만 의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국졸과 중졸인 경우에 고졸이상인 경우 보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중졸과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즐겁지만 할 시간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을 가진 주부는 직업이 없는 주부에 비해 '즐겁지만 할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3).

새로운 음식의 조리방법을 알게되는 급원은 모든 변수에서 40% 정도가 '어른이나 친구'로부터 얻고 있었으며 'TV나 신문, 잡지'(27%), '요리책'(15.8%), '본인 스스로 개발'(13.7%)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 '요리책'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대중매체에서 얻는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 유무,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표 3. 식생활 준비에 대한 생각

N (%)

상황변수	집 단	귀찮지만 의무라고 생각해서	보통이다	즐겁다	즐겁지만 할 시간이 없다	기 타	합 계	X ²
연 령	20-30대	7 (13.3)	79 (61.7)	19 (14.8)	13 (10.2)	0 (0.0)	128 (100.0)	11.49 N.S.
	40대	40 (25.8)	73 (47.1)	21 (13.5)	20 (12.9)	1 (0.6)	155 (100.0)	
	50대	19 (18.6)	60 (58.8)	10 (9.8)	12 (11.8)	1 (1.0)	102 (100.0)	
	합 계	76 (19.7)	212 (55.1)	50 (13.8)	45 (11.7)	2 (0.5)	385 (100.0)	
교육수준	무 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29.72 p<0.05
	국 졸	4 (25.0)	8 (50.0)	3 (18.8)	1 (6.3)	0 (0.0)	16 (100.0)	
	중 졸	12 (23.1)	22 (42.3)	5 (9.6)	11 (21.2)	2 (3.8)	52 (100.0)	
	고 졸	38 (18.2)	127 (60.8)	29 (13.9)	15 (7.2)	0 (0.0)	209 (100.0)	
	대졸이상	19 (18.8)	53 (52.5)	13 (12.9)	16 (15.8)	0 (0.0)	101 (100.0)	
합 계	73 (19.2)	212 (55.5)	51 (13.4)	43 (11.3)	2 (0.5)	380 (100.0)		
직업유무	유	13 (20.0)	30 (46.2)	4 (6.2)	17 (26.2)	1 (1.5)	65 (100.0)	20.60 p<0.01
	무	63 (19.6)	183 (57.0)	47 (14.6)	27 (8.4)	1 (0.3)	321 (100.0)	
	합 계	76 (19.7)	212 (55.2)	51 (13.2)	44 (11.4)	2 (0.5)	386 (100.0)	
월 수 입	30-60만원	4 (28.6)	8 (57.1)	1 (7.1)	1 (7.1)	0 (0.0)	14 (100.0)	28.52 p<0.05
	60-100만원	19 (12.9)	85 (57.8)	23 (15.6)	20 (13.6)	0 (0.0)	147 (100.0)	
	100-200만원	33 (19.9)	91 (54.8)	19 (11.4)	21 (12.7)	2 (1.2)	166 (100.0)	
	200-300만원	18 (42.9)	18 (42.9)	4 (9.5)	2 (4.8)	0 (0.0)	42 (100.0)	
	300만원이상	1 (6.7)	11 (73.3)	3 (20.0)	0 (0.0)	0 (0.0)	15 (100.0)	
합 계	75 (19.5)	213 (55.5)	50 (13.0)	44 (11.5)	2 (0.5)	384 (100.0)		
가족형태	부부만	2 (20.0)	7 (70.0)	0 (0.0)	1 (10.0)	0 (0.0)	10 (100.0)	30.90 p<0.05
	부부와 자녀	61 (19.9)	168 (54.9)	42 (13.7)	34 (11.1)	1 (0.3)	306 (100.0)	
	부부와 웃어른	1 (9.1)	5 (45.5)	3 (27.3)	1 (9.1)	1 (9.1)	11 (100.0)	
	부부,자녀와웃어른	10 (19.2)	33 (63.5)	3 (5.8)	6 (11.5)	0 (0.0)	52 (100.0)	
	기타	2 (20.0)	2 (20.0)	3 (30.0)	3 (30.0)	0 (0.0)	10 (100.0)	
합 계	76 (19.5)	215 (55.3)	51 (13.1)	45 (11.6)	2 (0.5)	389 (100.0)		

표 4. 새로운 조리방법을 얻는 급원

N(%)

상황변수	집 단	어른이나 친구로부터	요리책	T.V.나 신문 잡지	본인 스스로 개발	기 타	합 계	X ²
연 령	20-30대	52 (40.6)	32 (25.0)	28 (21.9)	14 (10.9)	2 (1.6)	128 (100.0)	21.91 p<0.01
	40대	49 (44.5)	21 (13.5)	37 (23.9)	25 (16.1)	3 (1.9)	155 (100.0)	
	50대	37 (36.3)	8 (7.8)	39 (38.2)	14 (13.7)	4 (3.9)	102 (100.0)	
	합 계	158 (41.0)	61 (15.8)	104 (27.0)	53 (13.8)	9 (2.3)	385 (100.0)	
교육수준	무 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17.89 N.S.
	국 졸	6 (37.5)	2 (12.5)	2 (12.5)	5 (31.3)	1 (6.3)	16 (100.0)	
	중 졸	27 (51.9)	5 (9.6)	13 (25.0)	7 (13.5)	0 (0.0)	52 (100.0)	
	고 졸	86 (41.1)	32 (15.3)	57 (27.3)	28 (13.4)	6 (2.9)	209 (100.0)	
	대졸이상	36 (35.6)	20 (19.8)	33 (32.7)	11 (10.9)	1 (1.0)	101 (100.0)	
합 계	155 (40.8)	60 (15.8)	106 (27.9)	51 (13.4)	8 (2.1)	380 (100.0)		
직 업	유	32 (49.2)	14 (21.5)	10 (15.4)	7 (10.8)	2 (3.1)	65 (100.0)	7.41 N.S.
	무	127 (39.6)	47 (14.6)	94 (29.3)	46 (14.3)	7 (2.2)	321 (100.0)	
	합 계	159 (41.2)	61 (15.8)	104 (26.9)	53 (13.7)	9 (2.3)	385 (100.0)	
월 수 입	60만원 이하	5 (35.7)	2 (14.3)	5 (35.7)	1 (7.1)	1 (7.1)	14 (100.0)	11.89 N.S.
	60-100만원	61 (41.5)	27 (18.4)	35 (23.8)	19 (12.9)	5 (3.4)	147 (100.0)	
	100-200만원	67 (40.4)	25 (15.1)	49 (29.5)	22 (13.3)	3 (1.8)	166 (100.0)	
	200-300만원	20 (47.6)	5 (11.9)	11 (26.2)	6 (14.3)	0 (0.0)	42 (100.0)	
	300만원 이상	5 (33.3)	2 (13.3)	3 (20.0)	5 (33.3)	0 (0.0)	15 (100.0)	
합 계	158 (41.2)	62 (15.9)	103 (26.8)	53 (13.8)	9 (2.3)	384 (100.0)		
가족형태	부부만	4 (40.0)	3 (30.0)	2 (20.0)	0 (0.0)	1 (10.0)	10 (100.0)	15.03 N.S.
	부부와 자녀	128 (41.8)	47 (15.4)	84 (27.5)	41 (13.4)	6 (2.0)	306 (100.0)	
	부부와 웃어른	5 (45.5)	2 (18.2)	1 (9.1)	3 (27.3)	0 (0.0)	11 (100.0)	
	부부와웃어른과자녀	22 (42.3)	7 (13.5)	15 (28.8)	7 (13.5)	1 (1.9)	52 (100.0)	
	기 타	1 (10.0)	2 (20.0)	4 (40.0)	2 (20.0)	1 (10.0)	10 (100.0)	
합 계	150 (41.1)	61 (15.7)	106 (27.2)	53 (13.6)	9 (2.3)	389 (100.0)		

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대중매체에서 얻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국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개발하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즐겁게' 식사를 준비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연관시켜 볼때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식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며 새로운 음식의 방법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많은 연구³¹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식품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 본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교육수준과 월수입이 많아질수록 고용인이 준비하는 경우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사회가 변화한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부인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식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가족구성원의 식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겠다.

식사를 준비할 때 가족중 누구의 입맛에 맞추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남편을 위주로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본인의 입맛을 위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웃어른이 있는 경우에는 웃어른과 남편을 비슷한 비율로 중요시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5). 김⁹⁾ 등은 식사계획시 가장 고려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남편이 62.1%, 자녀가 28.1%, 할머니 7.3%, 주부 자신 2.6%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했는데 이는 본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주로 하여 식사를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끼니는 저녁이 가장 많아 70-80% 정도였으며 점심은 0-3%로 거의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1일 1회 정도가 31% 정도, 1주일에 3-4회 정도가 33%였는데 거의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경우도 6.7% 정도였다.

표 5. 식사 준비시 제일 고려하는 대상

N (%)

상황변수	집 단	웃어른	남 편	본 인	자 녀	기 타	합 계	X ²
연 령	20-30대	11 (8.6)	81 (63.3)	14 (10.9)	19 (10.9)	3 (2.3)	128 (100.0)	5.10
	40대	12 (7.8)	83 (53.9)	21 (13.6)	30 (19.5)	8 (5.2)	154 (100.0)	
	50대	10 (9.8)	62 (60.8)	13 (12.7)	14 (13.7)	3 (2.9)	102 (100.0)	
	합 계	33 (8.6)	226 (58.9)	48 (12.5)	63 (13.4)	14 (3.6)	384 (100.0)	N.S.
교육수준	무 학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8.82
	국 졸	0 (0.0)	12 (75.5)	1 (6.3)	3 (18.8)	0 (0.0)	16 (100.0)	
	중 졸	7 (13.5)	27 (51.9)	7 (13.5)	10 (19.2)	1 (1.9)	52 (100.0)	
	고 졸	19 (9.1)	124 (59.3)	24 (11.5)	34 (16.3)	8 (3.8)	209 (100.0)	
	대졸이상	7 (7.0)	58 (58.0)	15 (15.0)	5 (5.0)	5 (5.0)	100 (100.0)	
	합 계	33 (8.7)	223 (58.8)	47 (12.4)	62 (16.4)	14 (3.7)	379 (100.0)	N.S.
직 업	유	2 (3.1)	35 (53.8)	15 (23.1)	11 (16.9)	2 (3.1)	65 (100.0)	10.16
	무	31 (9.7)	190 (59.4)	33 (10.3)	54 (16.9)	12 (3.8)	320 (100.0)	
	합 계	33 (8.6)	225 (58.4)	48 (12.5)	65 (16.9)	14 (3.6)	385 (100.0)	p<0.05
월 수 입	60만원 이하	2 (13.3)	10 (66.7)	1 (6.7)	2 (13.3)	0 (0.0)	15 (100.0)	12.22
	60-100만원	13 (8.8)	90 (61.2)	18 (12.2)	23 (15.6)	3 (2.0)	147 (100.0)	
	100-200만원	16 (9.6)	91 (54.8)	22 (13.3)	30 (18.1)	7 (4.2)	166 (100.0)	
	200-300만원	2 (4.9)	24 (58.5)	3 (7.3)	8 (19.5)	4 (9.8)	41 (100.0)	N.S.
	300만원이상	1 (6.7)	10 (66.7)	3 (20.0)	1 (6.7)	0 (0.0)	15 (100.0)	
	합 계	34 (8.9)	225 (58.6)	47 (12.2)	64 (16.7)	14 (3.4)	384 (100.0)	
가족형태	부부만	0 (0.0)	7 (70.0)	3 (30.0)	0 (0.0)	0 (0.0)	10 (100.0)	96.11
	부부와 자녀	9 (2.9)	192 (62.7)	41 (13.4)	53 (17.3)	11 (3.6)	306 (100.0)	
	부부와 웃어른	5 (45.5)	4 (36.4)	1 (9.1)	1 (9.1)	0 (0.0)	11 (100.0)	
	부부와웃어른과자녀	19 (37.3)	21 (41.2)	2 (3.9)	6 (11.8)	3 (5.9)	51 (100.0)	
	기 타	0 (0.0)	4 (40.0)	2 (20.0)	4 (40.0)	0 (0.0)	10 (100.0)	
	합 계	33 (8.5)	228 (58.8)	48 (12.4)	65 (16.8)	14 (3.6)	388 (100.0)	p<0.01

식사준비에 드는 시간을 조사하여 점수화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아침, 점심식사의 순으로 그 점수는 각각 3.52, 2.86, 2.10이었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준비시간을 모두 합한 하루에 드는 총 식사준비시간의 점수는 평균 3.0정도로 1일 2-3시간을 식사준비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부들의 경우 아침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의 점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고 자녀가 있는 가족형태의 경우에도 높은 경향을 보여 40대 주부가 아침식사를 자녀의 도시락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의적이 지는 않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매 끼니별 식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긴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6). 박¹⁰⁾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한끼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가 62.4%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일 총 식사준비시간은 2-3시간 정도 였는데 이 시간은 주식

및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시간만 고려된 것이고 상차림이나 설거지 등의 식사관리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의 조사에서는 식사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식사준비 및 계획, 뒷처리, 관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주식 이외의 음식의 가짓수를 점수화한 결과 모든 변수에 있어 저녁, 아침, 점심순으로 나타났고 그 점수는 각각 3.22, 2.40, 1.64였다. 하루에 만드는 총 음식의 가짓수의 평균 점수는 3.12로 1일 평균 5가지 정도의 음식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40대 주부들의 경우 아침에 새로 만드는 음식의 가짓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았고 수입이 증가할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하루에 만드는 총 음식의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

표 6.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상황변수	집 단	아 침 ¹⁾	점 심 ¹⁾	저 녀 ¹⁾	1일 총계 ²⁾
연 령	20-30대	2.75±0.73 ³⁾	2.06±0.79	3.55±0.75	2.98±0.92
	40대	2.94±0.77	2.16±0.73	3.49±0.73	3.04±0.81
	50대	2.88±0.70	2.05±0.68	3.51±0.76	2.94±0.82
	평 균	2.86±0.74 ⁴⁾	2.10±0.74	3.51±0.75	3.00±0.85
		N.S.	N.S.	N.S.	N.S.
교육수준	무 학	1.00±0.00	1.00±0.00	3.00±0.00	1.00±0.00
	국 졸	2.88±0.72	2.00±0.89	3.25±0.77	2.88±0.89
	중 졸	2.90±0.69	1.96±0.71	3.33±0.68	2.83±0.71
	고 졸	2.91±0.71	2.15±0.71	3.55±0.76	3.06±0.86
	대졸이상	2.71±0.77	2.11±0.79	3.62±0.71	2.97±0.87
	평 균	2.84±0.73*	2.10±0.74	3.52±0.74	2.99±0.84
		N.S.	N.S.	N.S.	N.S.
직 업	유	2.74±0.73	2.10±0.89	3.46±0.75	2.94±1.00
	무	2.88±0.74	2.12±0.71	3.53±0.74	3.01±0.82
	평 균	2.86±0.74	2.12±0.75	3.52±0.74	3.00±0.85
		N.S.	N.S.	N.S.	N.S.
월 수입	60만원 이하	2.93±0.80	2.20±0.94	3.40±0.74	3.00±0.88
	60-100만원	2.91±0.73	2.03±0.71	3.48±0.76	2.97±0.81
	100-200만원	2.80±0.76	2.20±0.75	3.55±0.74	3.02±0.87
	200-300만원	2.88±0.71	2.00±0.80	3.74±0.73	3.07±0.95
	300만원이상	2.93±0.73	2.36±0.63	3.29±0.73	3.07±0.83
	평 균	2.86±0.75	2.12±0.74	3.53±0.75	3.01±0.86
		N.S.	N.S.	N.S.	N.S.
가족형태	부부만	2.20±0.79	1.80±0.79	3.20±0.63	2.20±0.92
	부부와 자녀	2.87±0.74	2.13±0.76	3.54±0.76	3.05±0.86
	부부와 웃어른	2.82±0.60	1.73±0.65	3.27±0.47	2.45±0.69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	2.96±0.71	2.15±0.64	3.52±0.67	3.00±0.71
	기 타	2.70±0.82	1.67±0.50	3.44±0.74	2.78±0.67
	평 균	2.86±0.74*	2.10±0.74	3.52±0.74	3.00±0.84**
		N.S.	N.S.	N.S.	N.S.
현 재 거주지	대도시	2.81±0.71	2.07±0.70	3.54±0.72	2.95±0.79
	중소도시	2.91±0.80	2.12±0.80	3.44±0.80	3.03±0.97
	농촌지역	3.19±0.75	2.38±0.80	3.67±0.66	3.00±0.74
	평 균	2.86±0.74	2.10±0.74	3.52±0.74	3.00±0.85
		N.S.	N.S.	N.S.	N.S.

1) '안한다': 1점, '30분 이내': 2점, '30-1시간': 3점, '1-2시간': 4점, '2시간 이상': 5점
 2) 아침, 점심, 저녁식사준비에 드는 시간을 총 합하여 '1시간 이하': 1점, '1-2시간': 2점, '2-3시간': 3점, '3-4시간': 4점, '4시간 이상': 5점으로 하였다.
 3) 평균±SD
 4) N.S.: F 검정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 : F 검정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 F 검정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거주하는 경우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매 끼니별 새로 만드는 음식의 가짓수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7). 김⁵⁾ 등은 하루 식사중 가장 중점을 두는 식사는

저녁식사(75.8%), 아침식사(22%), 점심식사(2.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했었는데 본 조사에서 세끼니중 가족이 함께 하는 횟수가 많은 식사가 저녁식사이며

표 7.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

상황변수	집 단	아 침 ¹⁾	점 심 ¹⁾	저 녁 ¹⁾	1일 총계 ²⁾
연 령	20-30대	2.35± 0.86 ³⁾	1.66± 0.87	3.26± 0.95	3.14± 1.01
	40대	2.50± 0.90	1.64± 0.87	3.13± 0.90	3.13± 1.06
	50대	2.33± 0.76	1.59± 0.78	3.31± 0.88	3.12± 1.10
	평 균	2.40± 0.85	1.64± 0.85	3.22± 0.91	3.13± 1.06
		N.S. ⁴⁾	N.S.	N.S.	N.S.
교육수준	무 학	2.00± 1.41	1.50± 0.71	3.00± 1.41	2.50± 2.12
	국 졸	2.25± 0.68	1.44± 0.63	2.75± 1.06	2.69± 1.01
	중 졸	2.35± 0.84	1.53± 0.61	2.82± 0.71	2.85± 0.89
	고 졸	2.41± 0.81	1.67± 0.92	3.20± 0.94	3.10± 1.11
	대졸이상	2.37± 0.87	1.64± 0.81	3.53± 0.77	3.37± 0.90
	평 균	2.38± 0.83	1.63± 0.84	3.22± 0.87**	3.12± 1.03*
	N.S.	N.S.			
직 업	유 무	2.37± 1.02	1.72± 0.91	3.38± 0.84	3.20± 1.11
		2.41± 0.82	1.62± 0.83	3.18± 0.93	3.11± 1.04
	평 균	2.40± 0.86	1.64± 0.85	3.21± 0.91	3.12± 1.05
	N.S.	N.S.	N.S.	N.S.	
월 수 입	60만원 이하	2.07± 0.47	1.50± 0.65	2.71± 0.73	2.60± 1.06
	60-100만원	2.41± 0.86	1.59± 0.85	2.97± 0.89	2.99± 0.98
	100-200만원	2.35± 0.86	1.68± 0.83	3.35± 0.91	3.17± 1.13
	200-300만원	2.52± 0.80	1.50± 0.71	3.52± 0.77	3.40± 0.77
	300만원이상	3.00± 0.96	2.89± 1.20	3.93± 0.62	3.80± 1.37
	평 균	2.41± 0.85*	1.64± 0.84*	3.22± 0.88**	3.12± 1.05**
가족형태	부부만	1.90± 0.74	1.40± 0.52	2.70± 0.82	2.27± 1.10
	부부와 자녀	2.40± 0.85	1.62± 0.83	3.23± 0.92	3.10± 1.05
	부부와 웃어른	2.45± 0.82	2.00± 1.00	3.27± 1.01	3.55± 0.93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	2.44± 0.85	1.75± 0.95	3.21± 0.87	3.31± 1.06
	기 타	2.50± 1.08	1.30± 0.67	3.20± 0.92	3.10± 1.20
	평 균	2.40± 0.85	1.63± 0.84	3.21± 0.91	3.12± 1.05*
	N.S.	N.S.	N.S.		
현 재 거주지	대도시	2.34± 0.83	1.59± 0.80	3.25± 0.85	3.13± 0.93
	중소도시	2.50± 0.89	1.67± 0.85	3.13± 1.01	3.08± 1.25
	농촌지역	2.57± 0.81	1.95± 1.20	3.29± 1.10	3.33± 1.11
	평 균	2.40± 0.85	1.63± 0.84	3.21± 0.91	3.12± 1.05
	N.S.	N.S.	N.S.	N.S.	

1) '안 만든다': 1점, '1-2가지': 2점, '2-3가지': 3점, '3-4가지': 4점, '5가지 이상': 5점
 2)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새로 만드는 음식의 가짓수를 총 합하여 '2가지 이하': 1점, '3-4가지': 2점, '5-6가지': 3점, '7-8가지': 4점, '9가지 이상': 5점으로 하였다.
 3) 평균± SD
 4) N.S.: F 검정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 F 검정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F 검정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저녁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저녁식사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리된 음식의 이용도는 모든 변수에서 '전혀' 혹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70%, '가끔이용하는' 경우가 25%였고 단지 3.5% 정도만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혀 이용하

표 8. 조리된 음식의 이용도

N (%)

상황변수	집 단	전혀 이용 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 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합 계	X ²
연 령	20-30대	29 (23.0)	46 (36.5)	43 (34.1)	8 (6.3)	0 (0.0)	126 (100.0)	25.73 p<0.05
	40대	42 (27.1)	80 (51.6)	31 (20.0)	2 (1.3)	0 (0.0)	155 (100.0)	
	50대	40 (39.2)	32 (35.3)	23 (22.5)	2 (2.0)	1 (1.0)	102 (100.0)	
	합 계	111 (29.0)	162 (42.3)	97 (25.3)	12 (3.1)	1 (0.3)	383 (100.0)	
교육수준	무 학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36.95 p<0.05
	국 졸	7 (43.8)	7 (43.8)	2 (12.5)	0 (0.0)	0 (0.0)	16 (100.0)	
	중 졸	21 (40.4)	21 (40.4)	9 (17.3)	1 (1.9)	0 (0.0)	52 (100.0)	
	고 졸	62 (29.8)	91 (43.8)	50 (24.0)	4 (1.9)	1 (0.5)	208 (100.0)	
	대졸이상	20 (20.0)	35 (35.0)	39 (39.0)	6 (6.0)	0 (0.0)	100 (100.0)	
합 계	110 (29.1)	155 (41.0)	100 (26.5)	12 (3.2)	1 (0.3)	378 (100.0)		
직 업	유	21 (32.8)	21 (32.8)	17 (26.6)	5 (7.8)	0 (0.0)	64 (100.0)	7.74 N.S.
	무	88 (27.5)	141 (44.1)	83 (25.9)	7 (2.2)	1 (0.3)	320 (100.0)	
	합 계	109 (28.4)	162 (42.2)	100 (26.0)	12 (3.1)	1 (0.3)	384 (100.0)	
월 수 입	60만원 이하	5 (33.3)	6 (40.0)	3 (20.0)	1 (6.7)	0 (0.0)	15 (100.0)	9.37 N.S.
	60-100만원	50 (34.0)	60 (40.8)	33 (22.4)	4 (2.7)	0 (0.0)	147 (100.0)	
	100-200만원	44 (26.8)	69 (42.1)	46 (26.2)	7 (4.3)	1 (0.6)	164 (100.0)	
	200-300만원	10 (23.8)	19 (45.2)	12 (28.6)	1 (2.4)	0 (0.0)	42 (100.0)	
	300만원 이상	3 (20.0)	5 (33.3)	7 (46.7)	0 (0.0)	0 (0.0)	15 (100.0)	
합 계	112 (29.2)	159 (41.5)	98 (25.6)	13 (3.4)	1 (0.3)	383 (100.0)		
가족형태	부부만	2 (20.0)	2 (20.0)	3 (30.0)	3 (30.0)	0 (0.0)	10 (100.0)	35.10 p<0.05
	부부와 자녀	81 (26.6)	131 (43.1)	84 (27.6)	7 (2.3)	1 (0.3)	304 (100.0)	
	부부와 웃어른	4 (36.4)	4 (36.4)	3 (27.3)	0 (0.0)	0 (0.0)	11 (100.0)	
	부부와웃어른과자녀	20 (38.5)	22 (42.3)	9 (17.3)	1 (1.9)	0 (0.0)	52 (100.0)	
	기 타	5 (50.0)	3 (30.3)	1 (10.0)	1 (10.0)	0 (0.0)	10 (100.0)	
합 계	112 (28.9)	162 (41.9)	100 (25.8)	12 (3.1)	1 (0.3)	387 (100.0)		
현 재 거주지	대도시	63 (25.8)	107 (43.9)	68 (27.9)	5 (2.0)	1 (0.4)	244 (100.0)	8.89 N.S.
	중소도시	41 (33.6)	47 (38.5)	27 (22.1)	7 (5.7)	0 (0.0)	122 (100.0)	
	농촌지역	8 (38.1)	8 (38.1)	5 (23.8)	0 (0.0)	0 (0.0)	21 (100.0)	
	합 계	112 (28.9)	162 (41.9)	100 (25.8)	12 (3.1)	1 (0.4)	387 (100.0)	

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이용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갤럽의 조사¹²⁾와도 일치하였다(표 8). 조리된 음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변수에서 '당연히 집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44.2%), '비위생적이므로'(31.1%), '맛이 없어서'(10.9%), '가격이 비싸서'(8.6%), '기타'(5.2%)순으로 나타났다. 조리된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그 이유는 모든 변수에서 '조리하기가 힘들거나 귀찮아서'(42.3%), '조리시간이 없어서'(28.8%), '사는 것이 경제적이므로'(18.3%), '기타'(8.7%), '조리방법을 몰라서'(1.9%)순으로 나타났다. 조리된 음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찬류 등은 당연히 집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조리된 음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집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조리하기가 힘들거나 귀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외식하는 횟수는 '안한다'(30%), '1달에 1회'(26%), '2-3달에 1회'(24%), '1달에 2-3회'(18%), '1주에 1회 이상'(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외식빈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갤럽의 조사¹²⁾와

표 9. 외식 횟수

N (%)

상황변수	집 단	전 혀 하지 않는다.	2-3달에 1회	1달에 1회	1달에 2-3회	1주에 1회 이상	합 계	X ²
연 령	20-30대	30 (23.6)	17 (13.4)	40 (31.5)	36 (28.3)	4 (3.1)	127 (100.0)	30.34 p<0.01
	40대	51 (32.9)	43 (27.7)	35 (22.6)	25 (16.1)	1 (0.6)	155 (100.0)	
	50대	37 (36.3)	30 (29.4)	24 (23.5)	8 (7.8)	3 (2.9)	102 (100.0)	
	합 계	118 (30.7)	90 (23.4)	99 (25.8)	69 (18.0)	8 (2.1)	384 (100.0)	
교육수준	무 학	0 (0.0)	1 (50.0)	0 (0.0)	0 (0.0)	1 (50.0)	2 (100.0)	86.94 p<0.00
	국 졸	10 (62.5)	5 (31.3)	1 (6.3)	0 (0.0)	0 (0.0)	16 (100.0)	
	중 졸	22 (42.3)	21 (40.4)	6 (11.5)	3 (5.8)	0 (0.0)	52 (100.0)	
	고 졸	66 (31.7)	50 (24.0)	56 (26.9)	33 (15.9)	3 (1.4)	208 (100.0)	
	대졸이상	13 (12.9)	14 (13.9)	37 (36.6)	33 (32.7)	4 (4.0)	101 (100.0)	
합 계	111 (29.3)	91 (24.0)	100 (26.4)	69 (18.2)	8 (2.1)	379 (100.0)		
직 업	유	20 (31.3)	15 (23.4)	13 (20.3)	13 (20.3)	3 (4.7)	64 (100.0)	3.81 N.S.
	무	97 (30.2)	75 (23.4)	88 (27.4)	56 (17.4)	5 (1.6)	321 (100.0)	
	합 계	119 (30.7)	91 (23.4)	101 (26.0)	69 (17.8)	8 (2.1)	385 (100.0)	
월 수 입	60만원 이하	7 (50.0)	1 (7.1)	4 (28.6)	2 (14.3)	0 (0.0)	14 (100.0)	37.86 p<0.05
	60-100만원	58 (39.5)	40 (27.2)	32 (21.8)	17 (11.6)	0 (0.0)	147 (100.0)	
	100-200만원	42 (25.5)	38 (23.0)	49 (29.7)	32 (19.4)	4 (2.4)	165 (100.0)	
	200-300만원	8 (19.0)	9 (21.4)	9 (21.4)	13 (31.0)	3 (7.1)	42 (100.0)	
	300만원이상	1 (6.7)	2 (13.3)	6 (40.0)	5 (33.3)	1 (6.7)	15 (100.0)	
합 계	116 (30.3)	90 (23.5)	100 (26.1)	69 (18.0)	8 (2.1)	383 (100.0)		
가족형태	부부만	1 (10.0)	2 (20.0)	6 (60.0)	0 (0.0)	1 (10.0)	10 (100.0)	27.45 p<0.05
	부부와 자녀	88 (28.9)	69 (22.6)	83 (27.2)	60 (19.7)	5 (1.6)	305 (100.0)	
	부부와 웃어른	3 (27.3)	4 (36.4)	3 (27.3)	0 (0.0)	1 (9.1)	11 (100.0)	
	부부와웃어른과자녀	23 (44.2)	12 (23.1)	7 (13.5)	9 (17.3)	1 (1.9)	52 (100.0)	
	기 타	4 (40.0)	4 (40.0)	2 (20.0)	0 (0.0)	0 (0.0)	10 (100.0)	
합 계	119 (30.7)	91 (23.5)	101 (26.0)	69 (17.8)	8 (2.1)	388 (100.0)		
현 재 거주지	대도시	67 (31.3)	53 (21.6)	67 (27.3)	52 (21.2)	6 (2.4)	245 (100.0)	13.30 N.S.
	중소도시	44 (36.1)	29 (23.8)	31 (25.4)	16 (13.1)	2 (1.6)	122 (100.0)	
	농촌지역	8 (38.1)	9 (42.9)	3 (14.3)	1 (4.8)	0 (0.0)	21 (100.0)	
	합 계	117 (30.4)	90 (23.4)	101 (26.2)	69 (17.9)	8 (2.1)	388 (100.0)	

일치하였다. 부부만 사는 경우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외식하는 횟수가 많았다(표 9). 1988년도와 1990년도에 조사된 김¹⁰⁾과 장¹³⁾ 등의 연구에서는 1달에 1회 정도나 거의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90% 정도 였는데 반해 본 조사에서는 80%로 감소하여 점점 외 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특 별한 행사가 있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45% 정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40%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외식행동이 보편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식을 하는 이유는 '가족화목을 위해서'(51.5%),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고'(29%), '편 해서'(11%), '기타'(8.5%), '경제적이므로'(0.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으면 가족의 화목을 중요시

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 고'에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형 태별로 보면 부부만 사는 경우는 '특별한 음식을 먹 으려'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 화목을 가정식에서 피하던 과 거의 생각과는 달리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외식행 동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조리원리 지식

조리원리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맞은 답을 점수화한 결과 평균 3점으로 대략 8-10개 항목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 따른

표 10. 조리원리 및 조리방법 지식

상황변수	집 단	조리원리지식 ¹⁾	조리방법지식 ²⁾
연 령	20-30대	2.99±0.72 ³⁾	3.20±1.20
	40대	2.98±0.74	3.59±0.96
	50대	3.14±0.63	4.05±1.04
	평 균	3.02±0.70 N.S. ⁴⁾	3.59±1.07**
교육수준	무 학	3.00±0.00	2.50±2.12
	국 졸	3.06±0.57	2.80±0.86
	중 졸	2.86±0.72	3.49±1.08
	고 졸	3.04±0.71	3.65±1.07
	대졸이상	3.05±0.71	3.73±1.24
평 균	3.02±0.71 N.S.	3.60±1.11*	
직 업	유 무	3.00±0.77 3.02±0.60	3.46±1.15 3.62±1.12
	평 균	3.01±0.70 N.S.	3.59±1.12 N.S.
	월 수 입	60만원 이하 6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3.47±0.64 2.93±0.76 3.07±0.63 3.00±0.83 3.13±0.74
평 균	3.03±0.71 N.S.	3.60±1.08**	
가족형태	부부만	3.00±0.82	2.40±1.51
	부부와 자녀	3.01±0.72	3.60±1.10
	부부와 웃어른	3.09±0.70	4.00±1.00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 기 타	3.12±0.68 3.00±0.50	3.80±1.02 3.25±1.28
	평 균	3.02±0.71 N.S.	3.60±1.10**
현 재 거주지	대도시	3.04±0.69	3.69±1.07
	중소도시	2.94±0.76	3.44±1.20
	농촌지역	3.29±0.56	3.28±1.07
	평 균	3.02±0.70 N.S.	3.60±1.11 N.S.

1) 조리원리지식을 묻는 15개 문항중 맞은 항목이 '4개 이하'인 경우 1점, '5-7개'는 2점, '8-10개'는 3점, '11-13개'는 4점, '14개 이상'은 5점으로 하였다.
 2) 20가지의 한국전통음식을 선정하여 각항목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1점,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조리방법은 모른다'는 2점, '어느정도 조리방법은 알고 있으나 해 본적이 없다'는 3점, '어느정도 조리방법은 알고있다'는 4점, '조리방법을 잘 알고있다'는 5점의 점수를 준후 각 20개의 항목을 합하여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는 1점, '51-61점'은 2점, '61-70점'은 3점, '71-80점'은 4점, '80점 이상'은 5점으로 하였다.
 3) 평균±SD
 4) N.S.: F 검정결과 유의성인 차이가 없다.
 * : F 검정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 F 검정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10).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영양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는 비교적 많이 실시되었으나⁴⁻⁷⁾ 조리원리 및 식품에 대한 지식에 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본 조사를 시도하였는데 조사결과 각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조사에서는 조리원리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엄선하고 문항의 수도 늘려야 한다고 여겨진다.

5. 조리방법 지식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측정은 비교적 현재에도 가정에서 조리된다고 여겨지는 20개의 한국 전통음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을 총정리하여 점수한 결과, 모든 변수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조리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조¹⁴⁾ 등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웃어른이 있는 경우 전통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령과 웃어른과 함께 사는 경우는 일치하지만 학력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음식별로 보면 '조리방법을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조리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음식은 계삼탕, 너비아니(불고기), 오곡밥, 수정과, 호박죽, 토란국, 보쌈김치, 막장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느정도 조리방법은 알고 있으나 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음식은 약과, 육포, 탕평채, 장산적, 구절판, 호박선, 겨자채, 신선로, 편수, 대하점의 순이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리방법은 모른다'고 응답한 음식은

표 11. 한국 전통 음식들의 조리방법 지식

음 식 명	평균점수 ¹⁾	음식명	평균점수
계삼탕(삼계탕)	4.72±0.59 ²⁾	탕평채	3.31±1.30
너비아니(불고기)	4.69±0.67	장산적	3.23±1.37
오 곡 밥	4.69±0.59	구절판	3.19±1.22
수 정 과	4.62±0.66	호박선	3.16±1.47
호 박 죽	4.15±0.93	겨자채	3.12±1.37
토 란 국	4.09±1.05	신선로	3.06±1.13
보쌈김치	3.98±1.08	편 수	3.02±1.39
막 장	3.97±1.11	대하점	2.98±1.28
약 과	3.62±1.07	두텁편	2.76±1.41
육 포	3.36±1.13	홍합초	2.71±1.33

1) '들어본 적도 없다'는 1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리방법은 모른다'는 2점, '어느정도 조리방법은 알고 있으나 해본 적은 없다'는 3점, '어느정도 조리방법을 알고 있다'는 4점, '조리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5점.
 2) 평균±SD

표 12. 조사항목간의 상관관계

	나이	교육정도	가족형태	조리원리 지식	조리방법 지식	생활비 비율에 대한 생각	식사준비에 드는 본인의 노력 정도	가정생활중 식생활의 순위	본인의 요리습씨 정도	본인의 조리지식 정도	1일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	1일 새로 준비하는 음식수
나이	1.0000 $p=*****$	-0.2273 ¹⁾ $p=0.000(***)$	0.0647 $p=0.103$	0.0757 $p=0.070$	0.2951 $p=0.000**$	-0.0195 $p=0.351$	0.0581 $p=0.128$	0.0518 $p=0.156$	0.1352 $p=0.004**$	0.1492 $p=0.002**$	-0.0163 $p=0.375$	-0.0060 $p=0.454$
교육정도		1.0000 $p=*****$	-0.0353 $p=0.246$	0.0465 $p=0.183$	0.1564 $p=0.002**$	0.1061 $p=0.019*$	0.1026 $p=0.023*$	0.0402 $p=0.218$	0.0573 $p=0.133$	0.0940 $p=0.034*$	0.0654 $p=0.103$	0.1806 $p=0.000**$
가족형태			1.0000 $p=*****$	0.0444 $p=0.192$	0.0848 $p=0.057$	0.0112 $p=0.143$	0.0058 $p=0.454$	-0.0558 $p=0.137$	0.0925 $p=0.034*$	0.0944 $p=0.032*$	-0.0147 $p=0.387$	0.0768 $p=0.066$
조리원리 지식				1.0000 $p=*****$	0.1293 $p=0.008**$	-0.0194 $p=0.352$	0.0372 $p=0.233$	0.0013 $p=0.490$	0.0722 $p=0.078$	0.0240 $p=0.319$	0.0432 $p=0.199$	0.0614 $p=0.115$
조리방법 지식					1.0000 $p=*****$	0.1488 $p=0.003**$	0.0829 $p=0.062$	0.0681 $p=0.103$	0.2017 $p=0.000**$	0.2591 $p=0.000**$	0.1790 $p=0.000**$	0.2132 $p=0.000**$
식생활비 비율에 대한 생각						1.0000 $p=*****$	0.0985 $p=0.026*$	0.0393 $p=0.220$	0.1381 $p=0.003**$	0.2166 $p=0.000**$	0.0451 $p=0.189$	0.0930 $p=0.034*$
식사준비에 드는 본인의 노력 정도							1.0000 $p=*****$	0.0267 $p=0.300$	0.2947 $p=0.000**$	0.2349 $p=0.000**$	0.1265 $p=0.006**$	0.1436 $p=0.002**$
가정생활중 식생활의 순위								1.0000 $p=*****$	-0.0191 $p=0.354$	0.0521 $p=0.153$	0.0717 $p=0.080$	0.0803 $p=0.058$
본인의 요리 습씨 정도									1.0000 $p=*****$	0.4747 $p=0.000**$	0.0870 $p=0.044*$	0.1501 $p=0.002**$
본인의 조리 지식 정도										1.0000 $p=*****$	0.0516 $p=0.157$	0.1501 $p=0.002**$
1일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											1.0000 $p=*****$	0.3401 $p=0.000**$
1일 새로 준비하는 음식수												1.0000 $p=*****$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2) *: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두텁편, 종합초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조¹⁴⁾ 등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 주부들의 전통음식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정할머니순으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알게된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박¹⁵⁾ 등의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을 지지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주부들은 집안의 웃어른으로부터 여러가지 풍속, 생활습관, 특히 음식 솜씨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통음식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주부의 역할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6. 각 조사항목들간의 상관관계

본 조사에서 행한 각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즉, 연령이 요리솜씨, 조리지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조리방법 지식에 대해 유의적인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수준과는 조리방법에 대한 지식정도, 식생활비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과다여부에 대한 생각, 조리지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식사를 위해 새로 만드는 음식의 가짓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구성형태와는 요리솜씨와 조리지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리원리 지식은 조리방법 지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조리원리지식이 많을수록 조리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부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월수입, 가족구성형태, 거주지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리방법 지식은 식생활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항목들과는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일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와도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항목들과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와도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조리방법의 지식이 많았으며 실제로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식사를 위해 새로 만드는 음식의 가짓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에 대한 본인의 총 관심도는 연령,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없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음식의 조리방법은 대상자의 40% 정도가 웃어른과 친구로부터 얻고 있었고 식품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귀찮지만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식사준비시 드는 시간은 1일 총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주식 이외의 음식 가짓수는 5가지 정도로 나타났다. 조리된 음식(나물, 찌개, 전, 잡채 등의 반찬류)은 전혀 혹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0% 정도였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집에서 조리해야하므로'(44.2%)와 '비위생적이므로'(31.1%)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외식하는 횟수는 1달에 1회 이상하는 경우가 46% 정도로 차지하였고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3) 조리원리 지식정도는 15개 항목중 8-10개를 맞춘 것으로 나타났고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수입, 가족구성형태,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조리방법 지식과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조리원리 지식이 많을수록 조리방법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조리방법 지식정도는 식생활에 대한 총관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또 직업이 없고 부부만 사는 경우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항목들과는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주부자신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식사를 위해 새로 준비하는 주식 이외의 음식 가짓수가 많았으며 조리방법 지식정도도 높아 전반적으로 식생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안인숙, 이영미, 문수재 : 중년기 여성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1), 1988, 43-49.
2. 한양일, 남궁석, 설민영 : 주부들의 식생활 실태와 그 형성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 1989, 1-7.
3. 이경자 : 전북지역 주부들의 식생활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4), 1991, 403-411.
4. 이희숙, 장유경 :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8(2), 1985, 90-97.
5. 정순자, 김화영 :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서울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4), 1985, 101-108.
6. 김혜경 :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연구. I.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5(2), 1987, 55-68.
7. 유희정, 송경희 : 서울시내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 및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 (2), 1990, 47-55.
8. 광충실, 최혜미 : 한국 여성의 단백질 섭취수준과 동, 식물성 급원이 체내 질소대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22**(4), 1989, 223-236.
 9. 오영주, 황인주, 우순자 : 여주지역 농촌주부들의 영양소 섭취실태. 한국 영양학회지 **20**(5), 1987, 301-308.
 10. 김영인, 김기숙 : 한국 대도시 가정의 부엌설비 및 조리기구에 관한 실태조사 제 1보: 부엌설비 및 식사현황에 대하여. 한국조리과학회지 **6**(1), 1990, 53-60.
 11. 박윤정, 조신호, 이효지 : 식품에 대한 지식이 조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6**(1), 1990, 41-51.
 12. 한국 갤럽 : 한국인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13. 장현숙 : 도시 및 농촌 거주 주부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0), 1988, 15-30.
 14. 조연숙, 홍상옥, 한재숙 :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 주부들의 의식조사 연구. 한국식문화학회 **3**(3), 1988, 281-292.